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9천 돌파	경제	-
2	돈 안 내고 월드컵 홈쳐보는 북한... '도둑 중계' 시작?	-	-

(1)기사/뉴스요약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9천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18일) 오후 1시 2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6.93포인트, 1.77% 오른 9,021.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처음으로 9천 선을 넘은 건 오늘 오후 12시 53분쯤입니다.

지수는 20.68p(0.23%) 오른 8,884.92로 출발해 8,900선 초반에서 오르내리다 오후부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수 산출 이래 처음으로,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에만 4천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올 초 4,309.63에서 1월 22일 5,000, 2월 25일 6,000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6일과 15일 각각 7,000과 8,000 고지를 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기가 8.46%, SK하이닉스가 6.66%, SK스퀘어가 5.83% 각각 상승하는 등 주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6,077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5,532억 원어치, 1,37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은 것은 지수 산출 이래 처음이다.**

## (2)기사/뉴스요약

### 돈 안 내고 월드컵 훔쳐보는 북한... '도둑 중계' 시작?

북한이 FIFA로부터 공식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국영방송으로 재전송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축구 전문 소식을 전하는 알레르타문디알은 17일 SNS 계정을 통해 "북한이 공식 중계 신호를 해킹해 2026 FIFA 월드컵 경기를 국영 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함께 올린 중계 화면엔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미국 대표 브랜드 광고가 그대로 노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레르타문디알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브랜드를 국영방송 화면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영상에는 스웨덴과 튀니지 선수 입장부터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 독일과 퀴라소 경기 장면이 보이고, 화면 상단에 '국제축구연맹 2026년 월드컵경기대회 조별리그전'이라는 자막도 달려 있습니다.

알레르타문디알은 중계권이 없는 북한이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위성 신호를 수신해 월드컵 경기를 사실상 불법 재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중계권 보유 여부와 위성 신호 사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FIFA나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북한이 FIFA로부터 공식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국영방송으로 재전송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UFC 프리덤 250	2026년 6월 14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종합격투기 경기를 말한다. 대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리는 명분으로 기획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에 맞춘 이벤트라는 점과 백악관을 격투기 경기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시사상식 사전
2	데이비드 호크니	1960년대 영국 팝아트를 선도한 인물이자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린 화가로, 대표작으로 <더 큰 침병>, <예술가의 초상> 등이 있다.	시사상식 사전

●사실스크랩\_매일경제

기사: 신입 학력 제한 없앤 SK하이닉스...AI가 바꾼 인재상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문구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직무 수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공지능(AI)이란 시대적 변화가 일자리 시장의 오랜 문법까지 뒤흔들고 있다. 미래 인재상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하이닉스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없앤 건 AI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업화 시대엔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암기하는 인재가 필요했다. 대학 졸업장은 이러한 능력을 보증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은 인간보다 AI가 훨씬 잘한다. 시대가 바뀐 만큼 인재의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태원 SK 회장이 AI 인재상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른 이와 함께하는 '공감 근육'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미 해외에선 학력보단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게 대세다.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미국의 사업가 피터 틸은 2011년부터 아예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한 청년들에게 직접 창업 자금을 지원, 혁신가로 양성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창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AI 첨단 기술과 공학 인재 육성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인 지 오래다.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창업 경험과 유연한 사고가 진정한 실력으로 존중받고 있다.

우리 교육도 이젠 AI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내신 등급과 수능 점수에 매몰된 채 과거의 틀을 고집하는 교육은 산업 현장의 수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청년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구직 활동마저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느는 건 교육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SK하이닉스의 실험이 실효성을 입증하고,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 널리 퍼져 채용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교육도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해선 곤란하다. AI 시대는 이미 와 있다.